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육아도움 디자인



# 목차

##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 과정 소개

## 3. 정황 조사

3.1 조사 계획 및 진행

## 4. 분석

4.1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의 관계를 통한 분석

4.2 하루 일과 시간을 통한 분석

4.3 육아를 위한 물리적 공간과 도구를 통해 본 분석

4.4 육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측면을 통해 본 분석

## 5. 디자인

5.1. 종합분석

5.2. 문제점 해결안

5.2.1. 사람

5.2.2. 시간

5.2.3. 비용

5.3.4. 의식

## 6. 결론 및 향후 과제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라 함은 한 사회의 제도나 구조에 기반한다고 여겨진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지각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과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지각하고 인식하는 행위는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정 인구수에 대한 연간출산수의 비율을 출산율이라고 정의할 때,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22 명이고 조사대상 193 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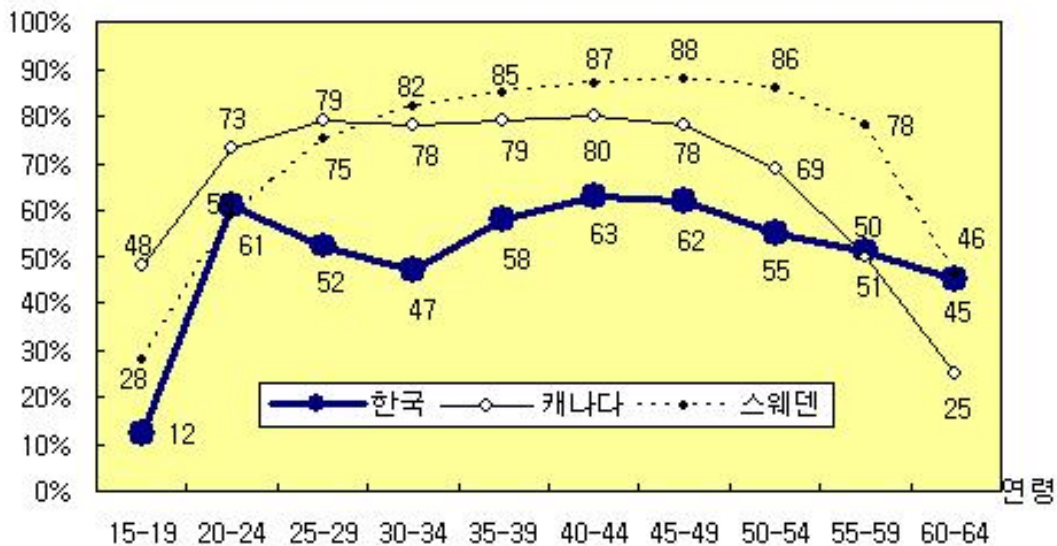
또한 한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높은 여성 고등교육 이수 비율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고학력여성 경제참여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지 십여년이 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원인 분석에만 매달리거나 전시성 대책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장 활발히 일해야 할 20~30 대에 육아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당기간 '노동시장 단절'로 연결되며 결국 중요한 여성 고급두뇌가 사장(死藏)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M 커브'. 여성인력에 있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나 스웨덴의 경우 U자를 뒤집어놓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20~30 대 유난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M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에 심각한 노동시장의 단절을 겪고 있다. 육아부담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가를 가로막는 실질적 족쇄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가정에 발을 붙인 후 다시 사회에 나가는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해당 직종에서 가장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할 시기에 일에서 손을 놓음으로써 전문가가 되기 힘들고 따라서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단순직이나 계약직 등 상대적으로 하급 직종에 머물 수 밖에 없게 되는 이후의 문제들도 모두 이 'M 커브'가 양산하는 부작용이다.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그림 1-1>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정황조사 방법론을 통한 분석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고학력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사회생활을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 2. 연구 과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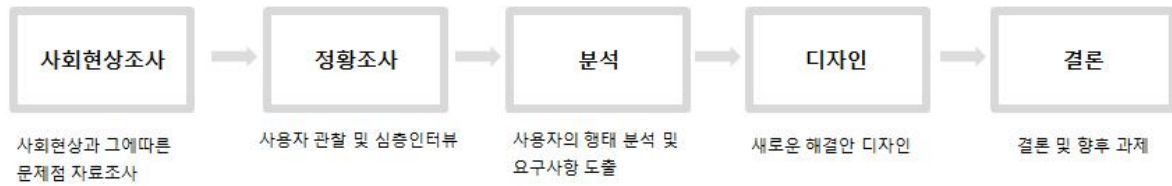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과정

이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선 사회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객관화된 문제점을 뽑아내고,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표본 집단의 주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그 대상의 정황을 관찰하여 행동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각자의 역할과 처한 환경에 따라 인식하는 행위가 달라짐을 고려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의 대상인 '0에서 3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엄마 중 주 양육자를 기준으로 첫째,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경우, 둘째, 아이 돌보미가 주 양육자인 경우, 셋째,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 양육자인 경우, 넷째, 보육 시설에 맡긴 경우로 분류하였다.



그림 2. 연구 대상자 선정 및 분류

처음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육아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위의 네 가지 분류 중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는 많은 반면 네 번째 '보육 시설'에 맡긴 경우는 찾아보는 것이 외국과는 달리 조금 어려웠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아이의 나이가 0에서 3세까지는 양육자의 직접적인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인식하에 공동육아방식인 보육시설에 가급적 보내지 않고 일대일 보육을 선호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깔려있는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이를 공동보육시설에 맡긴 경우를 제외하고, 주 양육자가 1)본인, 2)아이돌보미, 3)할아버지, 할머니인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된 '0-3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하고 관찰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6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사진	나이	자녀	직업	보육형태	특징
	32세	3세 남아 1세 여아	전업주부	본인이 직접 두 아이를 돌보고 있음 주 2회 가사도우미의 도움 가까이 사는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종종 받고 있음	아이가 생기고 일을 그만둠
	29세	3개월 여아	전업주부	베이비시터(입주형)가 주 양육자 남편이 군복무중이라 육아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태	질 높은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큼.
	37세	3세 남아	회사원	베이비시터(출퇴근형)가 주 양육자 근처에 친정어머니가 사셔서 예방주사 맞거나 병원가는 것, 급한 일 등을 도와주심.	공기업 11년차 과장으로 주말에 출근하고 월,화 휴일
	33세	7개월 여아	신문사 기자	베이비시터(입주형)가 주 양육자 양가 부모님께서 지방에 사셔서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님	신문사 기자로 주말출근이 많고 생활패턴이 불규칙함
	34세	3세 여아 둘째 임신 중	회사원	친정어머니가 주 양육자 친정이 멀어서 주말에만 아이를 데리고와서 됨.	엔지니어로 야근이 많고, 친정이 멀어서 아이를 주말에만 볼 수 있음
	34세	3세 여아	회사원	시어머님이 주 양육자 주말 친정어머니 도움 (불규칙적임) 아이 생후 1년까지는 육아휴직을 통해 본인이 직접 양육함 주 2회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주1회 홈스쿨을 하고 있음	대기업 10년차 과장으로 일에 대한 열망은 많으나 아이도 잘키울 수 있을지 걱정됨

그림3. 인터뷰 대상자

### 3. 정황 조사

#### 3.1 조사 계획 및 진행

정황조사는 다음의 세가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대상자를 인터뷰, 2)대상자의 정황을 관찰, 3)정황 관찰 후 다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황조사에 대한 분석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인 엄마와 주양육자, 그리고 아이를 중심으로 보고, 그 밖에 아이를 키우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것을 살펴보게된 원인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행위' 에 있어서 대상자와 영향을 주는 주변인들 각자가 어떠한 관계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둘째, 주 양육자가 언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하루 일과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하루의 시간에 따른 일과를 단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육아' 라는 행위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행위 과정의 명시를 통하여 육아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명시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셋째, 아이를 양육하는 주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을 조사하고, 육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장비나 물건들을 탐구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육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을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 4. 분석

각각의 심층 인터뷰 자료와 관찰 후 얻어진 자료를 정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앞서 설명한 네가지 체계를 가지고 통합 분석하였다.

#### 4.1.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의 관계를 통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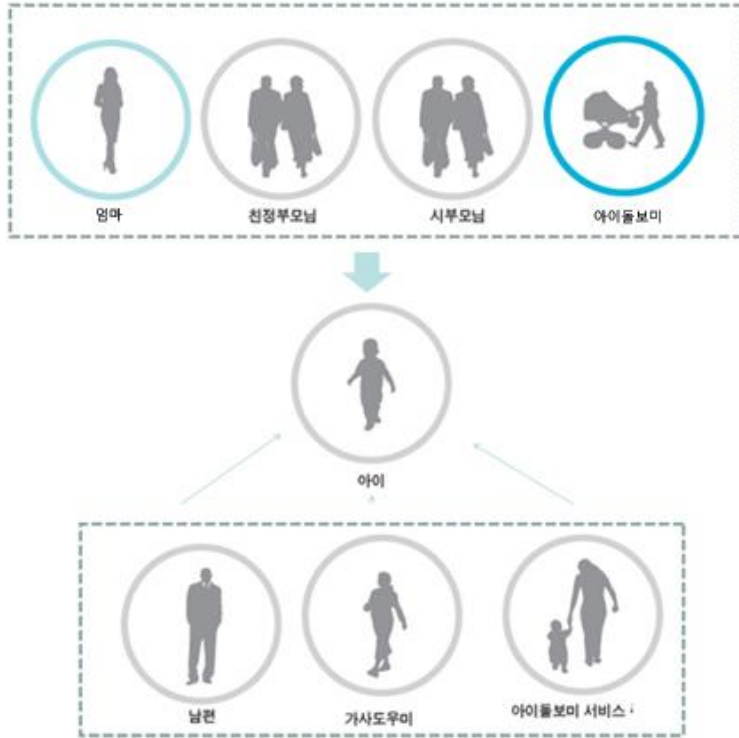


그림 4. 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관계도

아이를 키우는 육아 환경에서 가장 많은 행동이 일어나며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그림 3의 아이를 중심으로 위쪽에 위치한 사람, 즉, 주 양육자인 엄마, 시부모님 혹은 친정 부모님 (아이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돌보미(전문보육인)였다. 그리고 아이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남편, 가사도우미 등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 양육자의 손을 덜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남편, 즉, 아이의 아빠는

주 양육자가 되어 위쪽에 위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의 주변인이 되어 주로 단순한 도움을 주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쪽에 위치한 주 양육자들에게 요구된 사항은 돌보기와 학습을 포함한 교육, 0-3 세까지 주양육자가 변하지 않는 일관성과 연속성,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 내 아이처럼 키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엄마가 직접 돌보지 않고 아이돌보미(전문양육인)에게 맡겨진 경우, 그들에게 제공해야하는 급여가 해마다 크게 오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육아의 부담과 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4.2 하루 일과 시간을 통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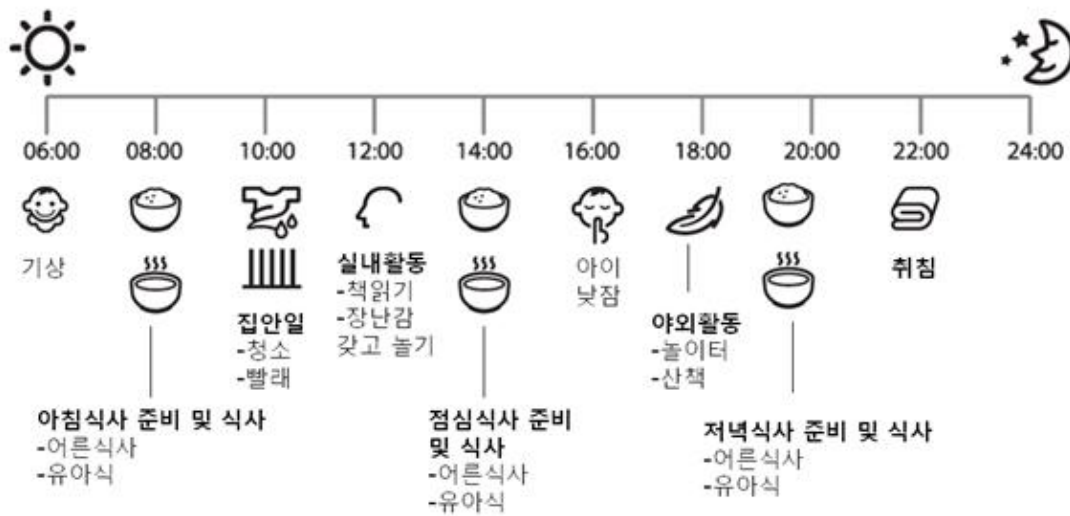


그림 5. 육아를 기준으로 본 주양육자의 하루일과

육아를 기준으로 본 주 양육자의 하루 일과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주 양육자의 개인 시간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잠깐 동안의 휴식 시간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이가 어릴수록 밤낮 없이 24 시간 매달려야 했고, 아이가 한명인 경우보다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히 주 양육자가 아이돌보미(전문양육인)인 경우에는 아이가 둘 이상인 집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뚜렷하여 사람 구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에도 한명은 키워줄 수 있어도 둘은 힘들다고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4.3 육아를 위한 물리적 공간과 도구를 통해 본 분석



0-3 세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집'으로 대부분 20-30 평대 이하의 집이었고, 주로 놀이와 학습을 하는 거실, 밥을 먹는 부엌, 그리고 잠을 자는 침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었다. 질높은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경쟁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이에게 제공해주는 물리적 환경, 그리고 장난감, 책, 교구 등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또 하나의 육아 부담으로 작용했다.

#### 4.4 육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측면을 통해 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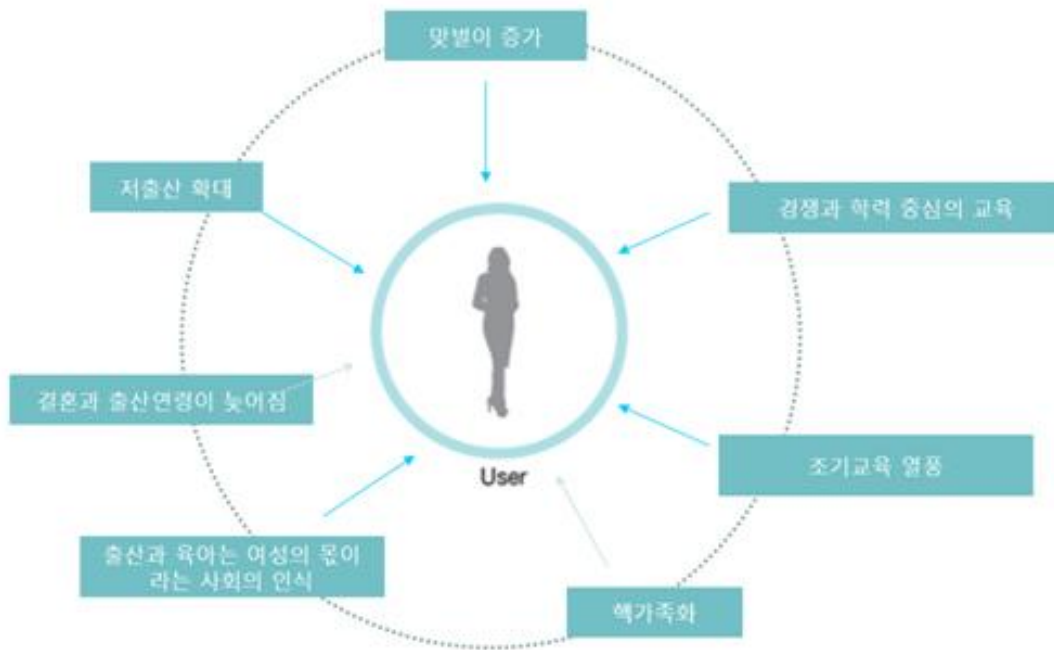


그림 7. 육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측면을 통해 본 분석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일하는 엄마가 많아져서 맞벌이가 증가하고, 저출산이 확대되고, 핵가족화가 되어가고 있다.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 직계가족 비율의 감소는 여성취업률의 증가로 인해 비롯되는 육아문제가 더 이상 사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위 : %)

연도	총혈연가구수 (천가구)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980	7,470	6.5	57.4	10.1	0.6	10.6	14.8
1990	10,167	9.3	58.0	8.7	0.9	9.4	13.8
2000	11,928	14.8	57.8	9.4	1.1	6.8	10.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 7-1> 가족의 형태별 분포

<표 7-1>에서 보듯이 67.2%의 가구가 부모 또는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구비율은 현재 6.8%에 불과하다. 직계가족 비율이 감소하는데 비해 이혼, 별거 등 편부모 가족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일하는 여성의 육아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로 인한 육아부담의 증가, 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면서 육아부담의 사회적 경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쟁과 학력중심의 교육풍조, 조기교육 열풍,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의 인식 육아하는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 5. 디자인

### 5.1. 종합분석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본 0-3세 사이의 아이를 둔 엄마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크게 네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사람', '시간', '비용', 그리고 '의식'이다.

첫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엄마들이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돌봐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잦은 야근, 주말 근무, 회식 등 직장 위주의 문화는 육아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들도록 하는 요인이다. 특히 아빠들이 주양육자에서 배제된 주변인이 되지 않도록 자녀양육에 투여할 시간이 요구된다.

셋째,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고, 요즘은 아이의 수가 곧 부의 상징이라고 일컫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 부담감은 육아를 힘들게 하는 큰 요인이다.

넷째, 출산 및 양육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과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일하는 엄마의 자식에 대한 죄책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5.2. 문제점 해결안

종합분석에 근거하여 사람, 시간, 비용 그리고 의식으로 나누어 해결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5.2.1. 사람

엄마가 주 양육자인 경우에는 육아가 처음이라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이 많았고, 할머니의 경우에는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있지만 요즘 시대에 잘 맞지 않거나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또한 아이돌보미, 곧 전문양육인도 제대로 교육받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도움이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일하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아이돌보미의 질적수준향상이 시급하므로 자격평가를 통한 육아도움인증제를 제안한다. 또한 경력에 대한 부분도 검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경력관리를 해주고, 초반 50시간 교육 외에 월 1-2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평판 조회도 가능하게 하고,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조건이 미달인 사람이 더 이상 육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막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전문양육인 스스로 전문성을 가지고 양육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5.2.2. 시간

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엄마와 똑같이 석달로 해주고,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유도한다.

### 5.2.3. 비용

육아에 드는 비용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하는 식의 출산장려금은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을 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아니라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육아응원특별수당이란 것도 내놓았다. 초등학교 입학 전 둘째 아이를 둔 가정에 육아 비용으로 어린이 1인당 3만6,000엔(48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육아비용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한다.

### 5.2.4. 의식

가정 중심의 사회분위기,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의식을 바꾸려는 교육과 캠페인의 지

속적 투자와 관리를 제안한다. 부부학교, 부모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가정과 사회, 기업 분위기를 가정친화적인 분위기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 6.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를 통해 육아도움이 절실한 엄마들을 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너무나 열악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부 대책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으나 탁상공론식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신경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만 매달려도 부족한데 일을 병행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이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또한 육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엄마'에게 부가되어있어서 하면 힘들고, 안하면 안한다는 죄책감이 '엄마'라는 역할의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짐을 지어준다.

아이는 국가의 미래로, 나라의 역군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부담이라면 쉽게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직장에서의 배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여자는 사적 영역, 남자는 공적 영역을 담당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일하는 엄마의 힘든 상황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보고 '아빠'의 가정에서의 역할변화도 절실하다.

여성이 사회진출을 해야 한다,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안에서 부모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람, 시간, 비용, 의식이 함께 맞물려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컨텍스트를 생각하는 디자인』, 캐런 홀츠블랫, 제서빈 번스 웬들, 셸리 우드

[2] 박영신, 김의철,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자기 개념과 가족 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